

한균태 총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한  
20·21학번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커뮤니티 협오 표현 제재 방법 사실상 부재. 대학의 역할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 대학주보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는 2017년 '우리사이'를 끝으로 4년째 궐위 상태다.

(사진=이현정 기자)

## 총여 해산 결정, 결국 여학생 손에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여학생회(총여) 해산 결정 건에 대한 여학생 총투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7일, 제5차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상정한 총여 해산 결정 총투표 안건이 가결된 결과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4차 확운위에서 부결된 안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여 해산 결정 총투표의 유권자를 서울캠 총여 정회원인 '서울캠의 모든 재학생 중 여학생'으로 한정했다. 투표 인원 101명 중 찬성 75표, 반대 2표, 기권 24표를 받아 투표 인원 2/3인 68표 이상 찬성표를 얻었다.

제4차 확운위에서 부결된 안건과 이번 안건의 차이는 단서조항의 유무에 있다. 여학생 총투표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전체 학생 총투표로 총여 권한을 박탈하고 총학생회 소속 배제 절차를 거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즉, 단서

조항에 의해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전체 총투표로 전환돼 총여 폐지 투표가 재실시된다.

상정된 안건은 총여학생회 회칙 부재로 총학생회칙 총투표 조항을 준용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관리위원장과 투표관리위원이 되어 진행한다.

지난 제4차 확운위에서 여학생 총투표 안건을 발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투표인원 113명 중 찬성 62표, 반대 14표, 기권 37표를 받아 투표인원 2/3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것이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제4차 확운위에서 안건이 부결된 후, 단서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제4차 확운위에서 여학생 투표를 찬성하는 수가 과반이 넘었다"며 "이 상황에서 이미 부결된 여학생 투표의 대체점에 위치한 전체 학생 총투표를 새로 운 안건으로 상정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학생 투표와 전체 총투표의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논의 끝에 여학생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총투표로 전환하는 단서조항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확운위 안건 중 여학생 총투표에서 전체 학생 총투표로 전환하게 되면 총여의 권한을 '박탈하고, 소속에서 '배제'한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했다. 남 회장은 "총여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단체 회원이 해결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학생 총투표로 전환해 투표를 진행하면 총여와 관련된 회칙상의 문구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단체가 된다고 판단하기에 위와 같은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3일간 진행되는 총여 해산 결정 투표는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모바일 투표 링크가 배포된다. 총여 해산 결정을 위한 총 투표는 규정에 따라 재적인원 1/2 이상 투표, 1/2 이상의 찬·반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여 총투표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대 이틀간 투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남 회장은 "4차 확운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후, 5차 확운위에서 가결되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 같다"며 "또 투표 공고와 투표 일시 사이에도 약 2주간의 공백이 생겨 투표율이 50% 이상 나오지 않을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 국제캠은 2019년에 이뤄진 학생 총투표 결과로 총여가 폐지된 바 있다. 서울캠 총여 역시 3일간 진행되는 여학생 총투표 결과에 따라 총여의 존폐가 결정될 예정이다.

### 사령

명 <정기자>

강민희(국어국문학 2019)

이봄(국어국문학 2019)

천민주(사회학 2020)

## 강의평가 시스템 개편된다

장혜림 기자 vicky2152@khu.ac.kr

이번 학기부터 강의평가 방식이 개편된다.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강의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눈에 띠는 부분은 강의평가 실시 횟수 확대와 평가 문항 수정이다. 강의평가 실시 횟수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총 2회로 확대된다. 지난 학기까지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1회 만 평가가 이뤄졌다. 중간평가는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문항은 기존 대면 수업 강의 평가에 사용된 10가지 문항에 수업 방식 관련 문항이 추가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비대면 수업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문항이 새롭게 더해지는 것이다.

학사지원팀은 "강의평가 실시 횟수를 2회로 늘리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수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교육에 대한 환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학생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자 방식을 개편하게 됐다"고 전했다.

강의평가 방식 개정에 대해 김도예(환경학 및 환경공학 2020) 씨는 "앞으로 학기 중에도 강의평가가 시행돼 학생들의 피드백이 반영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질 좋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 시행 세칙이 바뀐 만큼 대면 수업이 이뤄지더라도 중간평가는 계속된다.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강의평가에 추가될 세부적인 문항은 9월 중순경 우리학교 규정관리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